

노원코인 글로스퍼, 예산보다 놀이터를 주세요!

광주 MBC 칼럼

이흥노 교수

10 월 10 일

“물적 공간적 지원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기업이 뭐든지 해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만 확실히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와서 공간도 확보하고 테스트베드도 깔겠습니다.

시민들과 만나서 소통도 하고 블록체인 사용자네트워크를 키우겠습니다.”

노원코인으로 스타급 블록체인기업이 된 글로스퍼의 김태원 대표가

지난 주 10 월 2 일 ETRI 광주센터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비즈니스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후 한 말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블록체인관련 또한 스마트도시관련 관계공무원들을 비롯하여 특구의 많은 연구자와 기업가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광주시가 블록체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까요?” 라는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김대표가 또 대답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거나 세제 혜택 같은 건 필요 없다. 시정부가 블록체인 기업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고, 친 블록체인 정책을 굳건하고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에스토니아 대통령 칼류레이드의 방한인터뷰 기사를 보니, 세미나에서 김대표가 했던 이런 말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에스토니아는 1997 년에 전자 거버넌스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2000 년엔 전자서명을 모든 결재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구요.

2005 년엔 세계 최초로 온라인 투표도 실시하였지요.

2012 년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렇게 시장의 방향을 읽고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의료서비스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열람에 동의하면, 에스토니아의사는 환자가 그 동안 받아 왔던 치료과정과 병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온라인으로 본인의 병력과 치료과정, 처방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노력은 매년 1 만개 이상 스타트업 탄생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칼룰라이드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합법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글로스퍼 대표가 가장 절실하다고 외쳤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끝

참고기사

1. “에스토니아 대통령, 서울시 명예시민 됐다 박원순 시장, 어제 시민증 수여... 에스토니아 국적으로 사상 처음,” 국민일보, 입력 : 2018-10-09 19:5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16981&code=11110000&sid1=per>
2. “에스토니아 대통령 방한, 매년 1 만 스타트업 키운 비결 밝힌다, 정부 역할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합법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8.10.07 15:3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0714137685906>
3. “박원순 서울시장,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만나 블록체인 활용 방안 모색,” 김진배 기자, Blockchain Media, 2018 년 10 월 05 일.